전북대, 연구 논문 질적 수준 국내 최상위

2017 라이덴랭킹 상위 10% 논문 비율 종합대 7위… 거점국립대 중 1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7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 상위 10% 논문 비율에서 국내 종합대학 7위에 올랐다.

거점 국립대 가운데는 단연 1위에 오르며 논문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세계 9백2개 대학의 과학기술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이 발표한 논문의 질적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의미다.

설문조사 등 주관적인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2012~2015년까지 톰슨로이터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용횟수라는 객관적 지표만을 활용해 5개 학문 분야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비율을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종합대학 10위에 랭크됐던 전북대는 올해 평가에서 생명 및 지구과학 분야에서 국내 4위에 랭크되는 최상위 성적을 냈고 물리학 및 공학 분야에서도 국내 9위 오르며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들을 대부분 제쳤고 경제 규모가 2~3배에 이르는 타 지역 거점 국립대에도 모두 앞서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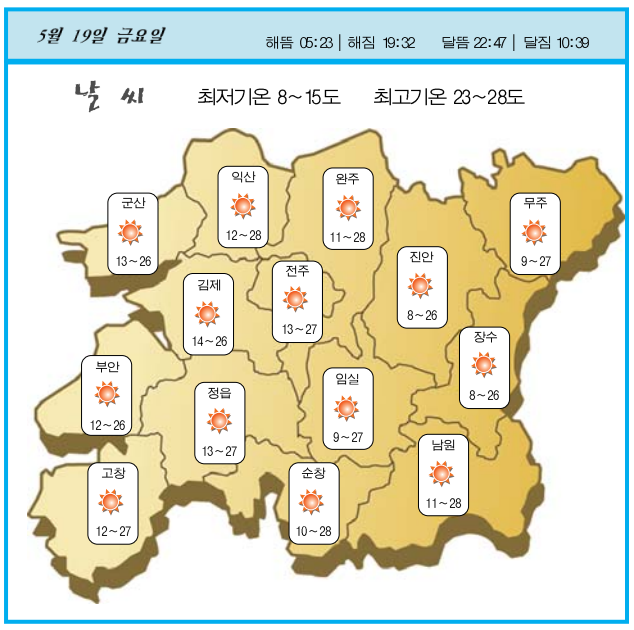
매년 이 평가에서 국내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대는 연구진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책과 교수들의 연구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대는 학문 분야별 상위 10% 논문을 발표한 교수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논문의 질을 우선하는 교수업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대학 교수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월드클래스 학문 분야를 육성해 전북대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수퍼스타 어린이집' 개원 18일 전주대학교는 수퍼스타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수퍼스타 어린이집은 전주대가 중심이 되고 근로복지공단과 전북도, 전주시가 지원해 만든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수학교 정기 현장지원

전라북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18일 특수학교 정기 현장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이날 오후 전주은화학교와 전주선화학교를 방문,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학교현안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인권지원단은 도교육청과 각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곳 씩 도내 총 15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은 15개 지원단에 내부위원 96명, 외부위원 75명 등 총 1백71명이 참여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2017학년도(2017년 3월~2018년 2월)에만 도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공동가정생활기관 등 총 2백61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기 현장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영아 10명, 유치원 201명, 초등학교 1,325명, 중학교 836명, 고등학교 961명, 특수학교 전공과 212명 등 총 3,545명이다.

/정해은기자

원광대 생명과학부 박순주 교수 연구팀

유전자 편집 토마토 광주기성 개화인자 조절 · 다수확성 개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생명과학부 박순주(사진) 교수 연구팀이 토마토가 계절을 인지해 꽃을 피우는 유전자를 분리한 후 최신 유전공학 방법인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토마토 식물의 개화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실 생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일반 상업용 토마토보다 2주 더 빨리 과실을 맺게 유도해 재배기간을 단축시키고, 고위도 지역에서도 토마토를 야외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CSHL의 Lippman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작물에서 수확량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CRISPR/cas9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써 옥수수, 콩, 밀과 같은 주요 식량 작물에도 응용이 가능한 응용가치가 매우 높은 연구 결과로 평가됐다.

"단순히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본 연구는 육종가가 꽃 생산 시기를 조정해 산출할 수 있는 유전 도구함(toolkit)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현재 지역적 한계로 재배되지 않는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개발할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 방법은 미국 연구팀과 박순주 교수가 여러 해 동안 연구 아이디어를 교류한 결과물로써 연구팀은 야생토마토의 Self Pruning 5G(SP5G)는 일조시간이 큰 장일조건에서 발현이 촉진돼 초형성장을 유발하고, 일조시간이 짧은 단일조건에서는 발현이 억제돼 개화유발과 함께 야생토마토가 생산됨을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야생토마토 SP5G를 일반 토마토에 도입해 단일조건의 개화 토마토를 만들었으며, SP5G를 과발현하는 토마토는 개화 시기가 매우 늦어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박순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토마토의 광주기성 개화연구에 필요한 첫 번째 유전자이자 중심유전자로 평가된다"며, "이는 토마토에 내재돼 있는 개화조절 메커니즘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적극적인 개화조절연구로 토마토 우성초형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BioGreen 21 프로그램 식물분자육종사업단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생명과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Nature Genetics 온라인판에 올해 1월 게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호원대, 입시홍보단 구성 신입생 모집 나선다

호원대학교가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입시홍보단을 구성해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호원대에 따르면 입시홍보단은 150명으로 전국 1200여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호원대 입시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유환신 호원대 입학처장은 "홍보단은 체계적인 입시홍보를 통해 우수학생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면서 "호원짱 리더십(인성)특강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호원대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은 "호원대는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아 '렛츠고 호원(Let's Go, Howon)'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입시홍보단이 혁신적인 홍보활동으로 호원대를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원대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알리미 취업률 조사에서 77.7%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장현기자

전주민예총 주관 '제2회 초록바위진혼제'

내일 곤지산 초록바위 진입로서

조선시대 말, 동학과 천주교 박해 등으로 완산동 초록바위와 전주 천변에서 죽임을 당한 혼령들을 위로하는 진혼제가 열린다.

전주민예총이 주관하는 '제2회 초록바위진혼제'가 오는 21일 오후 5시, 곤지산 초록바위(완산도서관 옆) 진입로 맞은 편(박영재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진혼제는 죽임을 당한 혼령들을 위로하는 진혼제로, 총 4막의 구성을 가지고 씻김굿 형태로 펼쳐진다.

본 행사에서는 곤지산 초록바위를 주관하는 산신을 위한 차례의식인 고시레로 시작해 진혼제 형식을 바탕으로, 초입거리와 본거리, 기원거리, 등 총 네 개의 거리로 풀어낸 제의의식의 음악 공연극도 펼쳐진다.

초입거리에는 초록바위와 전주 천변에 얽힌 영혼들을 위로하는 제의의식이, 본거리는 본격적인 굿판으로 부정풀이, 혼맞이굿이 펼쳐진다.

기원거리는 굿을 주관하는 자들과 청중들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기복굿이, 뒷전거리에서는 넋을 보내는 넋풀이, 길닦음이 펼쳐지고 설치미술 및 만장과 각종 상징물이 전시되어 진혼제의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진혼제와 함께 펼쳐지는 소리꾼과 연주잽이들이 퍼포먼스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